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오미경* · 이재모**

•요 약•

본 논문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을 요양보호사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여 돌봄 노인 죽음 경험의 현상 이해와 본질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재가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 죽음 돌봄 경험의 6가지 본질적 주제는 “변화와 불확실성 속으로”, “자신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동행”, “연습 없는 이별, 차가운 어둠이 밀려올 때”, “죽음 경험의 충격”,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맑은 향기는 멀리 간다”로 나타났다. 여섯 개의 주제에 근거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 환경과 특징, 책임과 의무, 역할의 수행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돌봄 노인의 죽음 경험의 실상을 논의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

주제어 :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 죽음 경험, 임종체험, 심층 면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¹⁾ 노인의 죽음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재가 노인의 죽음과 관련된 돌봄, 지원, 사후 과정까지 현장에서 돌봄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영남대학교 교수, E-mail: swleejm@yu.ac.kr : 교신저자

1)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통계개발원, 2020, p.2.

(이하 “방문요양보호사”로 표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중 죽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필연적이다.²⁾

방문요양보호사는 혼자서 다양한 돌봄 노인의 거주환경과 건강 상태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돌봄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양보호사에게 임종이나 죽음에 관한 실전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항상 불안한 가운데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³⁾ 지금까지 이러한 방문요양보호사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요양보호사가 처한 특이한 상황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가 노인 돌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는 죽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인의 죽음의 질을 결정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다양한 경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방문요양보호사가 노인 돌봄과정에서 경험하는 죽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한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생의 마지막인 죽음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방문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상황 대처 능력을 확립하여 죽음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노인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로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최종서비스 제공자인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돌봄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 경험이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질문

재가 방문은 상시 돌봄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봄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와 환경까지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져 매우 다양하고 특이한 양태를 보인다. 따라서 방문요양보호사는 재가 임종 돌봄이 갖는 특이한 환경과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으로 매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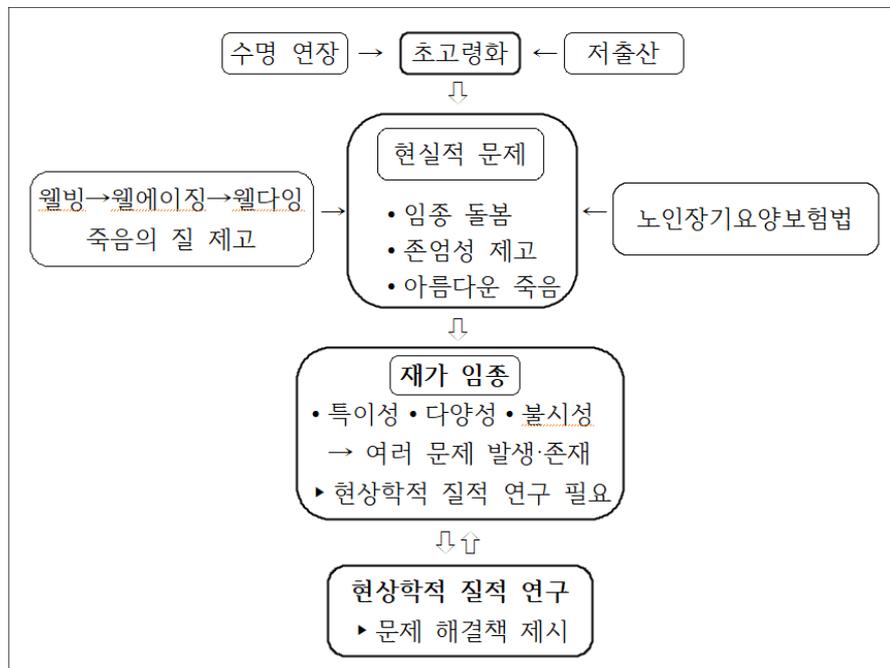
2) 안은숙,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p.1.

3) 이평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인 죽음 경험 연구”,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3.

색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과 관련된 경험, 태도, 가치관, 대처 방법 등을 분석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죽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노인 돌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 존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요양보호사의 임종 돌봄의 특이성은 무엇인가? 둘째,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그림 1〉 연구 계통도

II. 이론적 배경

1. 방문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방문요

양보호사는 공인된 요양보호사 자격 소유자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신체활동,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돌봄이 수급자를 위한 것이며,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⁴⁾ 방문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업무는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사 돌봄의 초점이 노인의 신체기능 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⁵⁾ 정서지원과 개인 활동 지원, 가사 등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많은 업무를 포함하여 실제 돌봄 제공에서는 다른 영역의 업무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 돌봄은 일반적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기간이 길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필연적으로 특정한 관계가 형성된다.⁶⁾ 특히 이용자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돌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⁷⁾

이러한 재가 노인 돌봄의 장점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 제공의 기본 원칙을 재가 돌봄을 우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가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 활성화 정책(월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150% 상향), 가족 수발자 지원 정책(치매 가족 휴가제, 24시간 방문 요양 도입, 가족 수발자 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 통합 재가 돌봄 모델 개발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⁸⁾

2. 죽음 불안과 좋은 죽음

죽음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인간 성장과 발달의 최종단계로 이를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⁹⁾ 사람은 이성적으로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거부하는 경우

4) 류임량,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서울대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6, p.77.

5)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안)』, 2012, p.13.

6) 류임량,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특성과 협상자원: 관련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2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6, p.102.

7) 박기남, “유료 재가 노인 돌봄 노동과 돌봄 관계의 특성”, 『가족과 문화』, 21집 3호, 한국가족학회, 2009, p.75.

8)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416-421.

9) Leming, M. R. and Dickinson, G. E,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6th ed.)*,

가 많아 필멸의 존재이면서도 불멸을 추구하고, 유한의 존재이면서 무한 존재를 추구하기에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죽음 불안은 존재의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사후의 결과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¹⁰⁾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일 수 있다. 즉 누가 나를 돌볼까, 고통스럽게 혹은 혼자 외롭게 죽어가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노인들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줄 수 있다.¹¹⁾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불안에는 죽음 그 자체와 죽어가는 과정, 자신과 타인의 죽음, 사후 세계 등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이 포함된다.¹²⁾ 죽음 불안에 치치렐리(Circirelli)는 두려움의 정서나 생각, 공포, 걱정, 불편함 등을 포함하고¹³⁾ 있다고 하였으며, 손슨과 파워(Thorson and Powell)은 사물의 부재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죽음과 관련된 고통에 대한 불안, 신체의 처리에 대한 염려, 부패에 대한 불안, 사후 행해질 일에 관한 지식에 관한 염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⁴⁾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가치관, 철학,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리하지만, 인간은 좋은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질적인 돌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¹⁵⁾

전국의 만 65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호한 임종 장소는 자택(37.7%)이었다.¹⁶⁾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다면 편안하고 익숙한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노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고자 하는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2007, p.40.

10) 최외선, “노인의 자아 통합감과 죽음 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4호, 한국노년학회, 2007, pp.755-773.

11) 이이정,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p.66.

12) 이흥표, “종교적, 실존적 영성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 효과”, 『스트레스 연구』, 제26권 제2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18, p.115.

13) Cicirelli, V. G., “Personal meanings of death in older adults and young adults in relation to their fears of death”, *Death Studies* 25; 2001, pp.663-683.

14) Thorson, J., & Powell, F., “Meanings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1990, pp.379-391.

15) 이평화, 앞의 논문, p.12.

16) 어유경·고정은, “한국 노인의 선호 임종장소와 결정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p.593.

것을 좋은 죽음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임종을 삶의 공간인 집에서 정을 나누었던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임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에서의 임종은 방문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문요양보호사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은 죽음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 대상인 노인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

돌봄 노인 죽음에 관한 연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며 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요양보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김미애(2010)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죽음과 돌보던 환자의 죽음으로부터의 간접 경험을 통해 죽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전지윤(2014)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임종 경험을 내부자 관점에서 파악하였다.¹⁸⁾ 이치숙 외(2014)는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연구참여자들은 노인들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생의 마지막 단계를 아름답게 헤쳐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¹⁹⁾ 이평화(2015)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인 죽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노인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²⁰⁾ 안은숙(2020)은 Giorgi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은 관계적 노동 특성을 보인 돌봄과정의 선행경험이 죽음 경험을 주관화하며 증폭된 경험으로 체험되도록 작용하고, 다시 이 증폭된 죽음 경험이 결과적 후속 경험들을 양산하는 인과관계적 본질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¹⁾ 그리고 이명호(2020)의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입소에서부터 임종까지의 과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서사적으로 분석하여 시설 임종 문

17) 김미애, “요양보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죽음 준비교육 요구”, 한양대 임상간호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p.57.

18) 전지윤, “요양보호사의 임종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p.1-92.

19) 이치숙, 변상해,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pp.4908-4918.

20) 이평화, 앞의 논문, pp.56-82.

21) 안은숙, 앞의 논문, p.173.

제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다루었다.²²⁾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재가 방문요양보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시설 요양보호사와 달리 다양한 환경과 조건의 노인을 죽음까지 혼자서 돌봄하는 특수한 노동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경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을 알게 되는 경위’²³⁾에 대한 손미현(2020)의 연구와 70세 이상의 노년기 방문요양보호사에 국한하여 환자 죽음 경험을 해석 현상학적 분석(IPA)을 적용하여 연구한 김은아(2022)의 논문²⁴⁾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재가 노인의 정의 돌봄 노동자로서 주도적으로 임종 돌봄까지 수행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문요양보호사는 혼자서 돌봄 노인의 임종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일대일 돌봄을 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돌봄 노인의 죽음까지 보살피면서 큰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방문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노인의 죽음 경험 연구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의 죽음 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로 재가 돌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의 본질에 관한 탐구로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 받지 않고 경험 세계의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다.²⁵⁾ 따라서 현상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구하고,²⁶⁾ 사람들이 경험한 현상을 직접 이해하고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살아있는 인간 경험

22) 이명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임종 돌봄 서비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pp.1-242.

23) 손미현,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 죽음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p.69.

24) 김은아·김현주, “노년기 재가 요양보호사의 환자 죽음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2, p.142.

25)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서울: 한길사, 2014, pp.112-123.

26)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Ontario : Althouse, 1990.

을 기술함으로써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서술적인 연구방법이다.²⁷⁾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기술(description)을 통한 심층 연구로 개별적인 현상학적 맥락 속에서 죽음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은 후설 현상학의 근본정신을 계승하여 인간의 의식 속에 드러나는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데 충실한 방법론이며 연구자의 해석보다는 참여자의 경험 기술에 더 초점을 둔다.²⁸⁾ 다양한 유형의 경험 본질과 개인의 특이성은 상황적 구조 기술에서 자세히 설명될 수 있어 개별화된 경험을 통합하여 죽음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죽음 경험을 한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언어로 기술된 내용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즉, 연구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상황적 구조 진술로 개인의 특이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술 내용을 연구자의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전체 맥락에 따른 의미 구조를 도출한다. 전체 참여자의 경험을 본질적 구조 진술로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양한 개인적 삶의 본질을 대상자의 경험으로 보여주기 적합한 방법이다.²⁹⁾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각기 다른 환경과 특이성을 가진 방문요양보호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돌봄 노인의 죽음 상황과 그 현상에 관한 자료를 통해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임종 돌봄에 대한 주된 정보를 제공하는 재가방문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추천받은 한 명의 방문요양보호사로 시작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들과 기관의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snow 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추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5명으로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돌봄과정의 죽음 경험을 닦신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심리적, 물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를

27) 김분한 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비교고찰 -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29권 제6호, 한국간호과학회, 1999, p.1209.

28) Creswell, J. W, 조흥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2판, 서울: 학지사, 2010.

29) 김린아, “만성질환을 가진 중년 남성의 삶의 경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p.22.

모집하였다. 실제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풍부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돌봄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이고 돌봄과정의 죽음 경험이 5년 이내이며 수시로 진행될 면접 참여가 원활하게 가능한 방문요양보호사로 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번호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요양보호사 경력 (돌봄경력)	근무지	돌봄 노인 죽음 경험	
							횟수	당시 경력 (최초경험기준)
1	이**	여	44세	고졸	5년	○○○재가복지센터	4회 정도	3개월 내
2	황**	여	61세	고졸	6년	**재가노인센터	3회 정도	2년 내
3	김**	여	65세	고졸	6년	△△재가방문센터	3회 정도	1년 내
4	전**	여	67세	고졸	12년	□□재가복지센터	4회 정도	8개월 내
5	최**	여	62세	중졸	10년	□□재가복지센터	5회 정도	1년3개월 내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권리보장을 위해 참여자를 소개하는 기관의 실무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의 추천을 받았다. 또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와 면접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주요 특징 그리고 연구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고 더불어 비밀 유지와 익명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여자가 참여 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어주고 서명받았으며, 면담과 녹음을 허락받았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을(승인번호 7002016-A-2023-026) 받고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죽음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연구참여자와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주로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융통성 있는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대면으로 2회, 회당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하며, 면담 시 녹음과 현장 노트를 기록하고 추후 면담이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1회 면담은 연구참여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

였으며 2회는 죽음을 경험한 이야기를 스스로 구술하도록 연구자가 구성한 질문을 하였다. 면담 전 녹음의 범위,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알려주면서 녹음 및 기록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심층 면담내용은 텍스트로 구성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다. 면담 후 당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를 전사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느끼거나 보충된 내용도 심층 면담의 주요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보충하였다.

5. 자료 분석과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4단계로 수행하였다. 1 단계는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는 단계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읽는다.³⁰⁾ 이 단계는 자료 전체가 가진 대강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것은 다음 단계의 분석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녹음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직접 필사하였으며 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진술 내용이나 지참한 연구 노트에 기록된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의 관찰 내용을 참조하여 텍스트의 의미, 특히 침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현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표현된 의미의 현상 그대로를 이해하기 위해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언어에 함축된 현상학적 의미를 숙고하였다. 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고 잠시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진술문을 찾아 ‘의미 단위로 나누는 작업’이다.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춘 현상학적 관점에서 의미 단위를 구별해 나가는 단계이다.³¹⁾ 연구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전사한 기술 내용을 현상학적으로 환원하고 의미 있는 진술문을 추출하여 161개의 의미 단위(중심의미)를 구분하였다.

3단계에서는 확정된 의미 단위 각각을 연구자의 언어 즉 ‘학문적 언어로 전환’하는 단계로³²⁾ Giorgi는 특히 세 번째 단계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외적 기준이 부족하므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말한다.³³⁾ 이 단계에서 중첩되는 의미 단위들을 학문적 용어로 바꾸

30) Giorgi, A. and B.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In P. M. Camici, J. E. Rhodes & L. Yardley (Ed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Expanding perspectives in methodology and design* (pp.243-27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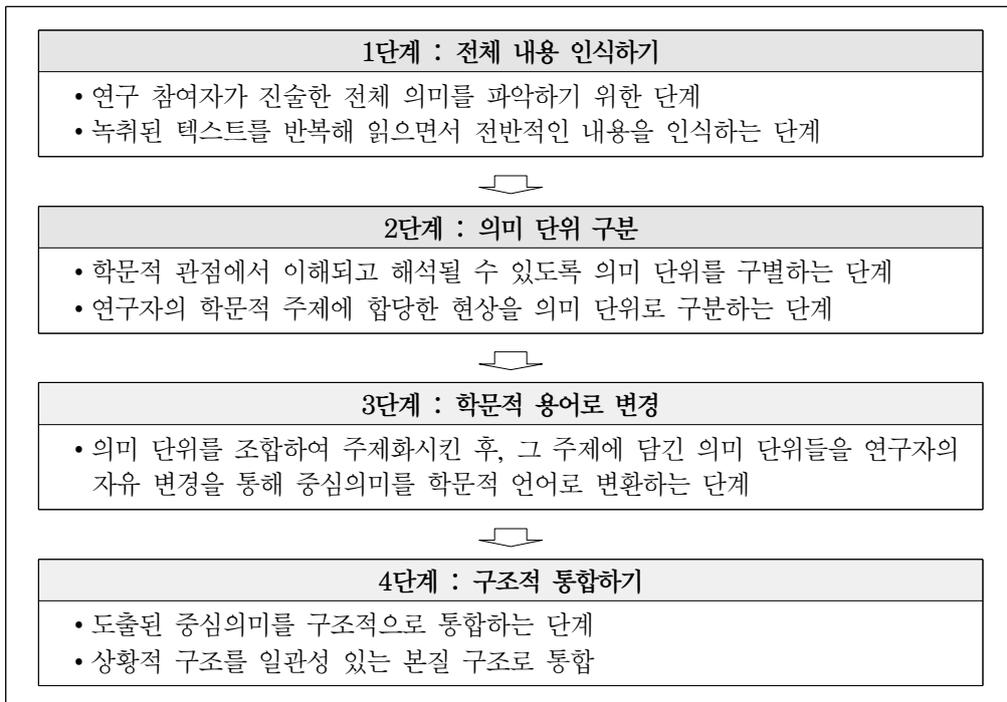
31) 김리아, 앞의 논문, p.27.

32) 고은성, “중년기 중증질환자의 중증질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세대 상담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p.58.

어 표로 정리하면서 서로 대조하여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 지으면서 의미 단위의 맥락적 의미를 살펴 공통적이며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학문적 표현을 하였다. 이때 Giorgi가 제안한 대로 가급적 일상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적합하게 합의된 학문적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될 일반화된 문장을 도출하였다.

4단계는 전환된 중심의미 단위를 기초로 하여 ‘경험의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변형된 의미 단위의 통합과 재구성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연구자가 자유 변경을 사용하여 학문적 용어로 기술한 의미 단위들로부터 구성 요소들을 도출해 여러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험의 일반적 구조 즉 경험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³⁴⁾ 이를 위해 방문요양보호사의 죽음 경험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개의 구성 요소와 6개의 본질 구성 요소가 도출되었다.

〈표 2〉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따른 4단계 분석



33) 안은숙, 앞의 논문, p.52.

34) 안은숙, 앞의 논문, p.52.

6. 연구방법평가

본 논문에서는 질적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엄격성(rigor)을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이 질적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측면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³⁵⁾

1)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사실적 가치는 연구를 통한 결과가 연구참여자의 의식과 경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반영하여 나타내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연구참여자의 의식과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³⁶⁾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충분한 관계(rapport)를 쌓은 후 1회 1시간 30분 이상으로 2회의 면담 과정을 거쳤고 부족한 내용은 전화로 연구대상자에게 질문하여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전자메일과 우편으로 보내어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와 내용이 연구참여자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 연구 결과를 구성하였다.

2)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적용 가능성은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가 유사 혹은 다른 맥락이나 장소, 다른 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³⁷⁾ 즉, 연구 상황 이외의 분야에서 본 연구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하였으며, 최초 연구대상자를 추천해 준 재가방문요양기관의 실무자와 질적 연구 경험자 1명에게 녹취된 자료와 연구 분석 결과를 보여주면서 본질적 주제와 의미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유사한지 검토하였다.

3) 일관성(consistency)

질적 연구는 경험의 다양성을 추구하므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연구 결과의 반복보다 연구 과정에 따라 진술된 내용의 상호 관계성과 공통점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35) 김민정, “요양보호사의 노인케어 경험에 관한 연구,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p.24.

36) 김민정, 위의 논문, p.25.

37) 김민정, 앞의 논문, p.25.

4) 중립성(neutrality)

중립성은 연구 과정이나 결과까지 선입견을 배제하고, 특정 관점과 의도된 목적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괄호 치기를 하여 중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5명의 연구참여자와 진행된 심층 면담을 통해 171개의 유의미한 진술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의미 있는 진술에서 드러난 중심의미는 161개로 간추려졌으며, 161개의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20가지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20가지의 도출 주제를 통하여 통합한 본질 주제는 6개로 “변화와 불확실성 속으로”, “자신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동행”, “연습 없는 이별, 차가운 어둠이 밀려올 때”, “죽음 경험의 충격”,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맑은 향기는 멀리 간다”로 요약되었다. 본 장의 연구 결과는 6개의 본질 주제를 중심으로 20가지의 도출 주제를 분석한다.

〈표 3〉 도출 주제와 본질 주제

도출 주제	본질 주제
1. 봉사에서 직업으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 긴장의 연속
2. 돌봄 전문가로 거듭나기	
3. 감정노동으로서의 재가 노인 돌봄	
4. 돌봄은 관계 속에 치유	자신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동행
5. 노인이 중심인 맞춤형 돌봄	
6.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7. 노인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돌봄	
8. 주는 정성, 편안한 메아리	연습 없는 이별, 차가운 어둠이 밀려올 때
9. 병원 임종 시대	
10. 죽음 예감	
11. 아직 가슴이 따뜻한데	

도출 주제	본질 주제
12. 정말 돌아가셨을까?	죽음 경험의 충격
13. 임종 돌봄 수행	
14. 죽음을 경험할 때	
15. 죽음 경험이 남긴 이야기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16. 좋은 죽음을 위한 마음의 준비	
17. 죽음 경험 후 돌봄	
18.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19.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	맑은 향기는 멀리 간다
20. 안정된 돌봄을 위한 연속성의 필요	

1.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 긴장의 연속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부모 돌봄이나 노인 돌봄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돌봄을 직업으로 갖는다. 재가 노인 돌봄은 각기 다른 환경과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상태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 긴장의 연속이다. 다양한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의 팔다리가 되어 육체적 도움을 주고, 말벗이 되어 정신적 안정을 공유한다. 힘겨운 황혼기의 돌봄 노인들은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다. 그래도 직업 정신으로 손을 꼭 잡고 동행하며, 가끔은 인정해 주고 칭찬하는 세상의 반응에 보람을 느끼며 미소 짓는다.

1) 봉사에서 직업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요양보호사 직업 선택이유로 경제적 도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노부모를 돌보면서 혹은 노인 돌봄 봉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친숙해진 노인 돌봄을 생계형 직업으로 갖게 된다. 가족으로서 자발적인 돌봄이나 봉사 차원의 돌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직업인으로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종사한다. 더불어 새로운 직업의 선구자이며 개척자로서 도전 정신을 불태우며 소신과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

동기는 아버지에 대한 죽음, 그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보호자가 없잖아요 ... 스펙을 쌓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동기로 자격증을 도전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1)

첫째 조건은 먹고 살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누군가한테 보탬이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고 ...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연구참여자3)

신중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변화에 따른 신중 직업이라 그냥 나한테 유효하겠다 싶어서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격증 따고 바로 취직했어요. (연구참여자 4)

2) 돌봄 전문가로 거듭나기

제가 노인 돌봄은 변화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집안 사정, 주위환경에 맞추어 최선의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돌봄에 집중한다. 나름 성심을 다한다고 자부하지만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가 내린 후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경험과 반성을 통해 전문가로 거듭난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긴장하며 조금씩 발전해 가는 느낌, 그 맛이 아주 미묘하다고 한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자신이 성장한다”라는 느낌, 뭔가 전문인으로서 한 발 한 발 더 이제 더 발전한다는 느낌, 그게 그 맛이 아주 미묘해요. (연구참여자 1)

어르신들이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서비스 신청이라든가 ...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연락 취해서 처리하고 하는데 내 손이 닿아서 해결이 됐었을 때 그때는 “내가 참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4)

3) 감정노동으로서 재가 노인 돌봄

제가 노인 돌봄은 일대일로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힘겨운 노인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이다. 노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불안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극한 감정을 그대로 요양보호사에게 토로한다. 때로는 가정부로 취급하며 명령조 막말을 하고, 비정상적인 신체접촉과 음담패설도 한다. 심지어 도둑으로 의심하고 대놓고 꾸짖기도 한다. 상호신뢰가 무너지고 직업적으로 대해야만 할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 업무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이해로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혼자 계신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매일 매일이 감정 기복이 심해요. 어제 기분 다르고 오늘 기분 다르고 진짜 그래요 어떤 날은 막 돌아가실 것 같고 얼굴이 ... 그

러면 그때는 너무 심해요. 극과 극이에요. (연구참여자 1)

어르신하고 부딪히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되게 초라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루를 힘들 때가 있고 어르신이 던지는 말이 그냥 일상이려니 넘길 때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4)

2. 자신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동행

돌봄 대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다. 가족 돌봄에서 공공 돌봄으로 돌봄의 주체가 바뀌었다. 주체는 바뀌어도 노인 돌봄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돌봄은 주체와 대상자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돌봄은 정성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길이다. 동행은 자신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길이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성심을 다한다.

1) 돌봄은 관계 속에 치유

돌봄은 사람(요양보호사)이 사람(노인)을 돕는 일이다. 돌봄은 상호 존중과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말동무가 되어 잘 들어주어야 한다. 적당히 맞장구도 치면서 유대감을 형성해간다. 기쁠 때는 함께 노래하고 슬플 때는 서로 위로하며, 힘들 때는 고통을 나누며 공감하고 소통한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소통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상호 이해를 통해 섬김이 깊어지고, 가끔은 돌봄 노인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신이 치유를 받기도 한다.

말벗 위주로 하되 어르신들의 생활에 어려운 부분들은 돌봄하고 ... 대화도 많이 하고..., 대화는 필수예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 어르신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이제 그런 것도 읽을 수 있고 오랜 유대감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한다고 그럴까요. 제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과의 “의사소통” 이예요. (연구참여자 2)

엄마, 아버지 그런 환경에서 받아야 되는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가정의 그런 안정감, 따뜻함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면서. (연구참여자 1)

2) 노인이 중심인 맞춤형 돌봄

돌봄의 중심은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다. 다양한 생활 환경과 삶의 가치관으로 돌봄 노인의 특성도 다양각색이다. 돌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시대다. 노

인의 처지에서 상태를 이해하며 노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유연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노인의 거동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지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자식이 그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학대라면, 요양보호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도 노인 학대가 될 수 있다.

이 아프신 분 어르신들을 볼 때는 지금 저렇게 많이 아프실 때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뭐를 발라 드려야 될까? 진짜 뭐를 갖다가 먹여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지. 지금 현재에도 어른들 모시고 있으면서... (연구참여자 5)

그때 그분은 불쌍했죠. 진짜 처절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 자식이 있는 딸은 한 번씩 와서 뭐 같은 거 갖다 주는데 아들은 안 오나 보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깨씹하기도 하고 그게 학대거든요. (연구참여자 1)

3)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노인 돌봄은 방문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정신과 육체적으로 힘든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노인 돌봄은 자식들마저 외면하는 시대이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제대로 해보고 싶다. 돌봄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극한 상황에 침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자긍심을 견지하고 나름대로 봉사의 기쁨까지 만끽한다.

자식들이 뭐 다섯이 있든 열이 있든 자식들도 각자 살다 보면 자기 위주로 살아요. 그리고 흘러들어요... “병원 가봐” 이 정도예요. 모시고 가는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 처음에는 내가 직업적으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뭔가 봉사를 하고 있고 자신이 뿌듯함, 자부심, 어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이 나한테 이렇게 보람된 일이라는 걸 내가 느끼고 ... (연구참여자 2)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못 해 드린 게 마음에 걸렸는데 내가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내가 요양보호사를 해야겠다. 힘들어도 어른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연구참여자 5)

4) 노인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돌봄

돌봄은 어르신의 잔존능력 발휘를 돕는 것이다. 돌봄 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도움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일상을 도와주되 내 부모처럼 모시고 정성을 다한다. 세심한 배려

로 육체적 고통을 들어주고 마음의 틈을 채워주어야 한다. 돌봄의 전문가로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잔존능력을 발휘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에 정성을 다한다.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한 실천 지식이다. 실천 지식은 위급상황 대응의 지혜가 될 수 있다.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고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 적극적으로 보조해 드리는 역할 ... 정성의 부분이에요. 근데 정성의 부분인데 부모에 대한 건 효심이에요.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거는 존중과 그다음에 직업과 윤리 의식이 있는 거죠. 직업윤리의 식이 그게 바탕이 되죠. (연구참여자 1)

이다음에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이 거의 90%, 그래서 그냥 나도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간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나도 그 어른들처럼 돌봄을 받을 때가 오잖아요. (연구참여자 4)

5) 주는 정성, 편안한 메아리

돌봄은 방문요양보호사와 노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부모와 같은 어르신에게 자녀처럼 대해 드린다.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도움을 준다. 배려하고 걱정하며 소통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정이 생겨 상호 관계로 승화된다. 서로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게 된다. 주는 정성만큼 메아리가 편안하다. 돌봄이 서로 고마워하는 길이 된다.

그분 마음에 들어서 뭔가 신뢰도 가고 만족스러워하시면 좋겠다. 편안해하시면 좋겠다. 저로 인해서 ...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 ...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내가 사랑을 드리는데 그분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 인간적으로... (연구참여자 1)

내 몸이 아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이 어르신이 내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내 걱정을 ... 이 어르신이 내가 병원 갔다 오는 날이면 그 어르신이 기도해 주셨어요. 안 아프게 해달라고. (연구참여자 4)

3. 연습 없는 이별, 차가운 어둠이 밀려올 때

한 세대 전까지만 하여도 집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 하여 함부로 시신을 집안으로 들이지 못할 만큼 거처하던 공간인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소중히 하였는데, 어느덧 상례 문화는 급변하여 지금은 병원 임종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삶의 끝자

락에 있는 노인을 상대로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죽음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1) 병원 임종 시대

제가 돌봄 노인의 병세가 악화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모신다. 위급하면 119로 연락하여 긴급 호송을 한다.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노인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거나 일반 병원에 입원한다. 병원에 입원한 노인 대부분은 병원에서 임종하게 된다. 병원에 가면 돌봄은 더 이상할 수 없다.

2년 동안 모시고 나서 이제 너무 악화되서 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는 안 가고 ...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죠. (연구참여자 1)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일은 일단락되는 거야. 종결이 되니까. 그리고 입원하시는 순간 서비스가 안 들어가니까. 내가 내일 방문하는데 오늘 저녁에 전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병원 간다고 그래서 잘 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오셨는지 궁금해서 ... 손자가 받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2)

2) 죽음 예감

노인 돌봄을 하다 보면 죽음을 예감할 때도 있다. 평소와 달리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몸을 완전히 기댄다. 몸을 떨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고열에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코피를 흘린다. 목욕시킬 때 바짝 마른 몸에 숨만 붙어 있는 느낌이 밀려오며 회생의 희망이 사라진다. 갑자기 “어떻게 죽어야 쉽게 죽어?”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 불안하다.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어르신 걷는 게 이상해요”. “어르신 병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날 금요일날 가셨대요. (연구참여자 2)

“몸이 떨거리가 나네” 떨린다고 ... 대소변을 보시고 당신이 의식이 전혀 없고 막 이렇게 눈을 뒤집으면서 막 별별 떨고 이러더라고요. 경기하듯이 그래서 이제 119가 왔는데 119 직원들이 보더니 아마 대동맥이 터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3) 아직 가슴이 따뜻한데

예고 없는 죽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식사하는 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돌아가시는 노인도 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의 손을 만지고 코에 휴지를 대어 본다. 죽으면 몸이 축 늘어져 등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 가슴에 온기가 남아있다. 죽음 앞에서도 망할 수는 없어 자식의 역할을 대신한다. 장례식장으로 모신 후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한두 숟가락 드시는데 시원찮아요. 눈을 감고 계세요. 뭐지? 그래서 얼른 알렸죠. (연구 참여자 1)

돌아가시면 축- 쳐져서 손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손 넣어보는데 근데 손이 잘 안 들어가고 코에다가 휴지를 좀 찢어다가 대봤어요. 그러니까 안 쉬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맥 짙는 것도 배웠잖아요. 손 여기 안 뛰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가슴은 따뜻해 지금 돌아가셨나 봐요” 그랬어요. (연구 참여자 3)

4. 죽음 경험의 충격

제가 방문 노인 돌봄을 하면서 노인의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제가 노인 돌봄 중에 발생하는 죽음의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죽음을 목전에서 경험하면 ‘정말 돌아가셨을까?’ 의심부터 하게 된다.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위급상황을 직시하고 혼자서 사태를 해결해 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죽음이라면 죽음까지도 돌봄을 한다.

1) 정말 돌아가셨을까?

돌봄을 해왔던 노인의 죽음 소식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다. 그때마다 뒤 통수를 얻어맞은 듯 충격적이다. “정말 돌아가셨을까?”. 충격이 멈추면 그 사람과 함께 한 돌봄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여보 당신 거기 ○○리 거기 당신 하던데잖아. 종점 집 혹시 거기 그분 아니야? 글썽 나 거기 그분 어르신 저기 지금 캐들락 영구차 그거 모시고 그러고 왔는데” ... (연구 참여자 1)

아니 어제까지도 보고 인사하고 국수도 잘 드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현실

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돌아가셨나? 뒤에 이렇게 뒤통수 맞으면 멍해지잖아요. (연구 참여자 2)

2) 임종 돌봄 수행

임종 상황은 방문요양보호사를 당혹스럽게 한다. 그래도 끝까지 돌봄을 수행한다. 돌봄 노인이 목전에서 임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에 연결하여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갑작스럽게 호흡을 멈춘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만약 죽어 있을 경우나 죽음에 이른 경우에는 112로 신고한다.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한 후 경찰의 사망 확인에 동행한다. 119구급 차량으로 돌아가신 분을 병원으로 운송할 때까지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간다.

119에서 이제 영상 통화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몇 번 하세요. 이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심폐소생술만 계속하세요. 이것만 심장 그거 박동만 계속하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탁탁탁 하고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 119에서 와서 했을 때는 벌써 임종 ...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경찰이 오고 막 그랬었어요. (연구 참여자 1)

3) 죽음을 경험할 때

돌봄 노인의 죽음은 돌봄을 통하여 정든 만큼 충격적이다. 시신을 막 끌어안고 “이렇게 가시면은 ...” 망연자실이다. 슬픔의 눈물을 쏟아내지만 때로는 머리가 멍해지고 몸에 전율이 일고 기진맥진하며 허탈감마저 든다. 조문하면서 영정 사진만 보아도 눈물이 난다.

그분 같은 경우 눈물 나더라고 저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 방에 청소도 하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양치질도 시켜드리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던 분이기 때문에 장난도 치시고, 웃고 ...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그때 내가 이제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 이제 막 황망하고 갑자기 멍하고 멍하고 그러는데 신체적으로는 막 떨렸어요. 나도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는 힘이 짝 빠지면서 맥이 탁 풀리니까 후들들들 ... (연구 참여자 2)

할아버지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가니까 돌아가셨던 분 그분도 장례식장 가고,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갈라놓는 거 그거 그걸 확인하는데 쉽지 않아요. 마음이... (연구 참여자 4)

5.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 경험은 후유증을 남긴다. 돌봄 노인의 죽음 경험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앞당겨 생각해 보며 점검하게 된다. 내심 아픈 만큼 성숙해지길 기도한다. 경험은 아픔을 딛고 새 다짐을 낳는다. 진행형의 돌봄에 죽음 경험의 소중함이 더해진다.

1) 죽음 경험이 남긴 이야기

죽음 경험은 죽음 상황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래서 돌봄 노인이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만 보여도 깜짝, 깜짝 놀라게 된다. 불안한 낌새가 있으면 수시로 전화하여 확인하고, 방문 시에도 문 앞에서 간밤의 안녕을 기원하며 ‘어르신!’을 먼저 불러 생 존 여부부터 확인한다. 유대감만큼 깊은 상처가 되어 의욕이 상실되며 만신창이가 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평상심을 회복해가지만, 또 다른 죽음 상황에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게 한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하신 분들은 들어가 기 전에 전화하게 돼요. 그리고 안도에 숨을 쉬고 들어가요. ... 그런 습관은 지금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걸 우리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 심장이 벌렁벌렁, 그게 길게는 3개월까지도 가요. 순간순간 이렇게 유대감은 있었으니까 그게 그래,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이 아픈 거지요. ... 정말 놀라고 상실감도 있고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걸 이겨내려고 내가 막 노력하고 이런 건 없어,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줘요. 그냥 흐르듯이 ... 내가 그러다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은 거지. (연구참여자 2)

2) 좋은 죽음을 위한 마음의 준비

죽음 경험을 통해 자기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좋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다 편안하게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한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연명 치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따봉이다. 최고라고 ... 연명 치료 같은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장기 기증도 신청했어요. (연구참여자 1)

어르신들하고 죽음에 대해 얘기할 때 “나는 죽을 거를 미리 다 준비해 왔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분도 계세요. 자식들한테 유언을 다 준비해 놓고요. 보건소 가서 싸인 다 해놓고 수명 연장하지 말라고요. (연구참여자 2)

3) 죽음 경험 후 돌봄

죽음 경험을 통해 돌봄 일상을 되돌아보게 된다.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을 갔지만 가끔은 영혼을 떠올리면 ‘좋은 데 갔을 것’이라 생각하며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힘들 때는 내 부모라 생각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드리고 외로움으로 우울하지 않게 생기를 불어넣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후회가 적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길을 가다 보면 돌아가신 분과 함께한 집을 자신도 모르게 쳐다본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미처 다하지 못한 돌봄의 아쉬움을 고려하며 다른 요양보호사의 경험 정보를 기꺼이 참조해서라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잘 돌보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처음 당했을 때는 서운하고 그런 데 몇 번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더 차가워지고 단단해지는 게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처음에는 이제 좀 내가 충격도 많이 먹고 슬픔도 큰데 지금은 그냥 아프다기보다도 “우리 아버님 주무신다. 긴 잠에 주무신다. 우리 어머니 긴 잠 주무시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4)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죽음 경험의 충격은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뒤흔들어 심리 상담까지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사회적인 관심과 위로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간다. 경험은 반성과 정리를 통해 발전의 계기가 되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다하지 못한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로 직업의식에 충실하며 내 부모처럼 돌봄 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한다. 이젠 두려움 없이 수시(收屍)까지도 할 수 있다.

치료도 받았어요. 보건소 가서 심리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몸이 이제 안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이제 막 우울해지는 거야.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수면 장애 때문에 수면 치료라기보다는 그 수면제 도움을 받았죠. (연구참여자 4)

내가 이렇게 약 숨으로 알코올 숨으로 소독 싹 해주고 그 거즈로 눈을 덮어주고 입도 덮어주고 귀속도 숨으로 막아주고 그렇게 하고 스킨로션 다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싹 ..., 근데 그렇게 해냈는데 죽은 사람이 그제 심장이 떨리고 무섭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 (연구참여자 5)

6. 맑은 향기는 멀리 간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점은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낯선 죽음에 당황한다고 한다. 그래서 『티벳 사자의 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당황하지 않고 저승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돌봄을 하는 방문요양보호사에게 죽음은 항상 낯설고 충격적이다. 죽음(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노인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하는 집에서 일상생활과 임종을 돌본다. 재가 임종 돌봄은 최선의 자리에서 삶의 마지막을 돌보는 아름다운 길이다.

1)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

죽음 상황은 언제나 긴장된다. 직업으로서 마땅히 감수해야 할 책임감과 의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함께 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위급한 상황이면 119에 신고하는 길밖에 없다. 돌봄 노인의 죽음 상황별 대응 요령은 알지 못한다. 죽음 상황을 직접 혼자서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죽음 상황별 대응 교육이 절실하다. 대응 절차와 함께 책임소재까지도 명확한 매뉴얼이 제공되면 좋겠다.

가족들 간에 라포 형성하는 거, 그 어르신을 관찰하는 내용들, 어떤 걸 관찰할 건지, 뭘 관찰할 건지, 여러 가지 이런 진조증상, 이제 끝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되는가, 언어, 어르신한테 대응하는 언어 등을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 임종 교육을 배우고 가면 좋죠. (연구참여자1)

근데 책임과 의무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나 해야된다는 그런 각오가 있지. 만약에 임종 교육이 있다면 그건 이제 일하고 관련되니까 교육을 받아야지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2)

2) 안정된 돌봄을 위한 연속성의 필요

사람들은 자신이 머물던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잠들길 희망한다.

집은 그만큼 익숙하고 편안하며 자유로운 공간이다. 재가 돌봄 노동의 월급은 적지만 어느 정도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일대일 근무라 소신껏 창의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 정년이 없어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이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그런 거, 요양보호사가 월급이 적어서 두 집, 세 집 이렇게 하면은 더 좋거든요. 경력 단절이 올 때, 이거는 피할 수 없거든요. (연구참여자 1)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어르신들하고 그냥 놀러 다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정해진 나이는 없어요. 근데 건강만 허락하면 그냥 꾸준히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

V. 결론

1.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재가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5명을 대상으로 돌봄 제공 과정에서 충격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죽음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겪은 죽음 경험의 내용과 의미 이해에 대한 통찰 내용을 제공하여 죽음 경험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봄 노인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높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공적 돌봄의 최종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질적연구 방법인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방문요양보호사가 겪는 돌봄 노인의 죽음 경험의 다양한 내용과 심리·정서적 영향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대한 본질 구조를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추천과 소개를 받은 5명을 선정하였고, 엄격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승인(7002016-A-2023-026) 거친 후 2023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심층 면접을 하였다. 면담은 대면으로 2회, 회당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체험 연구방법 4단계 분석절차를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1개의 중심의미, 도출된 주제는 20가지, 본질 주제는 6개로 통합되었다. 6개의 본질적 주제는 “변화와 불확실성 속으로”, “자신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동행”,

“연습 없는 이별, 차가운 어둠이 밀려올 때”, “죽음 경험의 충격”,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맑은 향기는 멀리 간다”로 20가지 주제와 함께 IV장에서 분석하였다. 분석한 본질 주제를 중심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질 주제는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 긴장의 연속”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집안 사정, 주위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돌봄 노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시간제 임금,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 인식, 각종 위험에 노출된 근로환경 등은 요양보호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전문성 그에 비해 취약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은³⁸⁾ 좋은 돌봄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³⁹⁾에서는 적극적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인정,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 맺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가족-노인-요양보호사의 파트너십이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⁴⁰⁾

두 번째 본질 주제는 “자신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동행”이다.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대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으로 가족 돌봄에서 공공 돌봄으로 돌봄의 주체가 바뀌어도 노인 돌봄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정성과 사랑으로 동행하며 자신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길이다. 노인은 다양한 생활 환경과 삶의 가치관으로 개별성을 지닌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유연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사회 여건으로 누군가의 대리 수행이 불가피한 중요한 역할을 훈련된 숙련가로서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 즉 ‘사회적 부양을 대리 수행하는 전문인’으로서 오늘날 변화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⁴¹⁾

세 번째 본질 주제는 “연습 없는 이별, 차가운 어둠이 밀려올 때”로 요양보호사는 돌봄 노인의 상태를 통해 죽음을 예감한다. 갑자기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몸을 떨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고열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코피를 쏟아낸다. 가끔은 돌봄 중에 죽음을 경험하고 처리하며 죽음을 실감한다.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 사람들은 집에서의 죽음을 선호한다. 아름다운 죽음은 주체적 임종을 기본으로 한다.

38) 김서영·홍석자,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문화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제12권 제1호,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5, pp.139-164,

39) 석재은 외,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p.222.

40) 임정미, “개호보험에서 케어직원이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p.276-277.

41) 안은숙, 앞의 논문, p.184.

준비된 죽음, 죽음 장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다.

네 번째 본질 주제는 “죽음 경험의 충격”이다. 재가 돌봄은 방문요양보호사가 혼자서 수행한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극한 죽음 상황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갑자기 직면하게 되는 죽음 상황은 크나큰 충격을 주게 된다. 일대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돌봄을 수행해온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돌봄 노인의 죽음은 연민과 상실로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준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노인에게 고통 완화 등 어떤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능력의 한계를 실감⁴²⁾하며, 돌봄 노인의 죽음 뒤에 후회와 죄책감 등으로 직업적인 회의감에 빠져 고통을 겪는다.⁴³⁾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임종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강성례, 이병숙⁴⁴⁾, 최애신⁴⁵⁾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종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불시의 죽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와 관내 응급구조기관이나 의료기관들과의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으로 유사시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본질 주제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이다. 돌봄 노인의 죽음 경험은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예기치 않은 죽음 상황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돌봄 노인이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면 죽음과 연계하여 긴장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낌새가 있으면 수시로 전화하고, 방문 시에도 문 앞에서 ‘어르신’을 먼저 불러 생존 여부부터 확인한다. 죽음 경험으로 인한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지만 또 다른 긴급 상황에 트라우마가 되어 나타난다. 죽음 경험이 긍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방문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하다. 외상 후 성장이론에 따르면 애도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회복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가 죽음 경험자들을 의도적 반추로 이끌고 결국 성장을 촉진한다고 한다.⁴⁶⁾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살핌으로 돌봄 노인의 죽음 경험으로 인한 방문요양보호사의 충격과 후유증이 충분한 애도 과정을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이명선, “임종환자를 돌보는 병원간호사의 경험 : 감정에 충실하면서 자신 추스르기”,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간호과학회, 2003, pp.553-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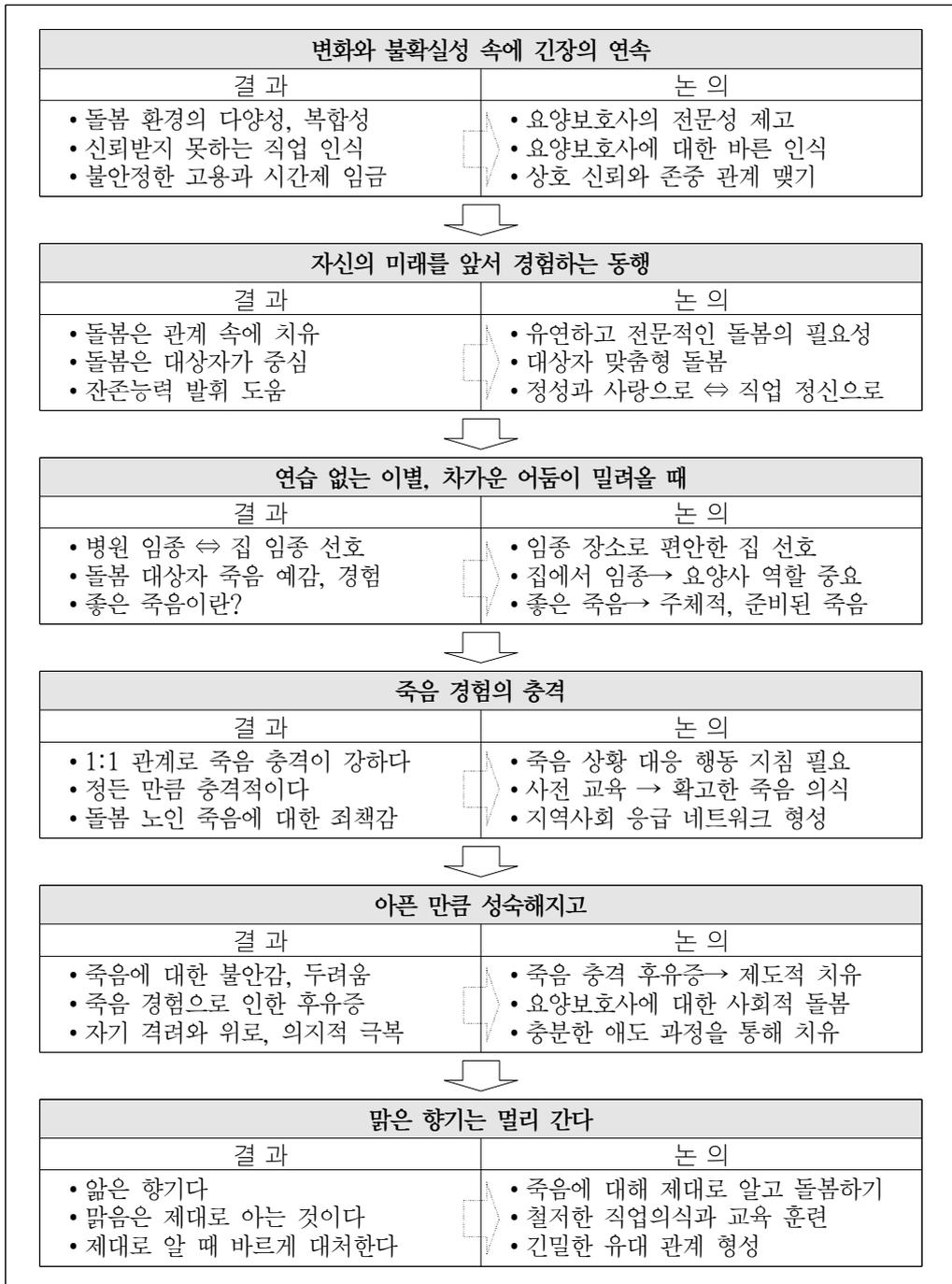
43) Saunders, J. M. and Valente, S. M, “Nurses’ grief”, *Cancer Nursing* 17(4):1994, pp.318-325.

44) 강성례·이병숙, “임상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체험”, 『간호행정학회지』, 제7권 제2호, 한국간호행정학회, 2001, pp.237-251.

45) 최애신, “신규 간호사의 임종 간호 경험”, 관동대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p.1-90.

46) Calhoun, L. G., Tedeschi, R. G., Cann, A., & Hanks, E. A, “Positive outcomes following bereavement: Paths to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 Belgica* 50, 2010, 125-143.

〈표 4〉 본질 주제 중심 연구 결과와 논의



여섯 번째 본질 주제는 “맑은 향기는 멀리 간다”이다. 길(way)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바르게 행할 수 있으며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랫동안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돌봄 노인의 죽음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직업으로서 마땅히 감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함께 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봄의 주체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후회와 자책감이 남는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상황별 대응 절차와 함께 책임 소재까지도 명확히 규정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은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죽음이란 특별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돌봄은 돌봄 수행자인 방문요양보호사와 돌봄 대상자인 노인의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져 노인의 삶의 질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돌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위급상황 대처와 임종 돌봄에 대한 충분한 실전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언과 맺음말

1절의 연구 결과와 논의 점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대부분이 여성인 방문요양보호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적인 공간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현장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문요양보호사는 다양한 환경의 돌봄 대상자를 상대로 혼자서 육체적·정신적 책임 돌봄을 수행하면서 성추행, 욕설, 의심, 막말 등 심각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가 임종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재가 노인 돌봄을 기반으로 집에서 준비된 임종 돌봄이 가능하도록 긍정적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종 장소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장치가 마련되어 누구나 재가 임종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요양보호사의 임종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방문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훈련 과정에서 임종 돌봄과 위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추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재가 돌봄 중에 수급자의 임종 상황이 발생하면 방문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 상황별 대응 지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 교육을 통한 행동요령의 습득도 필요하지만, 죽음이란 특

별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죽음 경험으로 겪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부정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방문요양보호사는 가족보다 더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임종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돌봄 노인의 죽음 경험은 방문요양보호사에게 최고 강도의 깊은 후유증을 남기거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임종 돌봄의 제공자인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돌봄 노인 죽음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방문요양보호사의 죽음 경험이 돌봄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해되며, 돌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연구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방문요양보호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여성 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해야 할 것을 밝힌다. 또한,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다양한 죽음 경험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서울: 한길사, 2014.
- Creswell, J. W. 저,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0.
- Leming, M. R. and Dickinson, G. E.,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6th ed.)*,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2007.
-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Ontario: Althouse, 1990.

2. 논문

- 강성례·이병숙, “임상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체험”, 『간호행정학회지』, 제7권 제2호, 한국간호행정학회, 2001.
- 고은성, “중년기 중증질환자의 중증질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세대 상담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김미애, “요양보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죽음 준비교육 요구”, 한양대 임상간호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민정, “요양보호사의 노인 케어 경험에 관한 연구”,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린아, “만성질환을 가진 중년 남성의 삶의 경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김분한 외,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29권 제6호, 한국간호과학회, 1999.
- 김서영·홍석자,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문화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제12권 제1호,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5.
- 김은아, 김현주, “노년기 재가 요양보호사의 환자 죽음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2.
- 류임량,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특성과 협상자원: 관련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2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6.
- 박기남, “유료 재가 노인 돌봄 노동과 돌봄 관계의 특성”, 『가족과 문화』, 21집 3호, 한국가족학회, 2009.
- 석재은·노혜진·임정기,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손미현,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 죽음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안은숙,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어유경·고정은 “한국 노인의 선호 임종장소와 결정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 이명선, “임종환자를 돌보는 병원간호사의 경험: 감정에 충실하면서 자신 추스르기”,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간호과학회, 2003.
- 이명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임종 돌봄 서비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이이정,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지숙·변상해,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 이평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노인 죽음 경험 연구”,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이홍표, “종교적, 실존적 영성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 효과”, 『스트레스 연구』, 제

- 26권 제2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18.
- 임정미, “개호 보험에서 케어 직원이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전지윤, “요양보호사의 임종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애신, “신규 간호사의 임종 간호 경험”, 관동대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외선, “노인의 자아 통합감과 죽음 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4호, 한국노년학회, 2007.
- Calhoun, L. G., Tedeschi, R. G., Cann, A., & Hanks, E. A, “Positive outcomes following bereavement: Paths to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 Belgica* 50, 2010.
- Cicirelli, V. G, “Personal meanings of death in older adults and young adults in relation to their fears of death”, *Death Studies* 25; 2001.
- Giorgi, A. and B.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In P. M. Camic, J. E. Rhodes & L. Yardley (Ed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Expanding perspectives in methodology and desig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Saunders, J. M. and Valente, S. M, “Nurses' grief”, *Cancer Nursing* 17(4): 1994.
- Thorson, J., & Powell, F, “Meanings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1990.

3. 기타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안)』, 2012.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14.
-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통계개발원, 2020.

【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eath Experience
of the Elderly Cared for by Home Visiting Caregivers

Oh, Mi-Kyeong · Lee, Jae-M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and nature of the caregiver's death experience by in-depth analysis of the elderly death experience of home visit caregivers from the caregiver's point of view.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caregivers engaged in home visit care institutions with rich field experience,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rough analysis, the six essential themes of visiting nursing caregivers' experiences of elderly death care are “into change and uncertainty”, “accompaniment to experience one's future ahead of time”, “parting without practice, When the cold darkness comes.”, “The shock of the death experience”, “It becomes mature as much as it hurts”, and “The clear scent goes far” appeared. Based on six themes, the work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role performance method and scope of visiting caregivers are examined, and then the reality of the death experience of caregivers is discussed and policies are proposed.

Key Words : Caregiver, Caring for the elderly, Death experience, End-of-life experience,
In-depth interview

